

《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第四》篇에 대한 文獻的 考察

金雲吉·朴陽春*

Abstract

The Literatual study on 《GeumGueyoryak · Hakbyeongmaekjeungbyeongchi》

Kim Un-gil O.M.D., Park Yang-chun O.M.D. Ph. D.
Division of Respirator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From this book, 《GeumGueyoryak · Hakbyeongmaekjeungbyeongchi(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 I finally got these conclusions of symptoms and pathology of Hakbyeong(瘧病).

1. Hakbyeong(瘧病) has main symptoms of repetition of chillness and fever and its main pulse is pulse of Hyeon(弦) and position is in the middle of inside and outside.
2. Change in shape of pulse caused by Hakbyeong(瘧病) can have shape of pulse of Sak(數), Jee(遲), Kin(緊), Dae(大) and more kinds depending on patients constitution, the cause of disease, or whether he/she has been poisoned by other kinds.
3. After 15 days of symptoms, As Cheonki(天氣) and Inki(人氣) get stronger and Saki(邪氣) gets weaker, Jeongki(正氣) can be more recovered and the diseases can be disappeared. But if the disease dose not get away after another 15 days of showing symptom, that disease can be treated as cutting the Jingha(癥瘕) under side of him/her.
4. The type of Hakbyeong(瘧病) which is diseased by the keeping the Haksa(瘧邪) for long time, can be classified as Hagmo(瘧母) which has symptoms of chillness and fever outside, and of Jinggha(癥瘕) inside, Danhag(瘧瘧) which has symptoms of difficulty with breathing, chest discomfort — caused by fever in the lung at ordinary times —, fever of extremities and nausea and that would make people worn out and thin after all, Onhag(溫瘧) which has main symptoms of fever and Mohag(牡瘧) which has symptoms of less fever and more chillness.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肺系內科學教室

5. In this thesis it has been described, the Byulgabjunhwan(鼈甲煎丸), Baekhogagaejitang(白虎加桂枝湯), and Chokchilsan(蜀漆散) is the respective prescription for treatment of Hagmo(瘧母), Onhag(溫瘧), and Mohag(牡瘧).

From this conclusion, if the more research about the cause of disease, pathology and prescription of the each symptom from 《GeumGueyoryak(金匱要略)》 hereafter, I could say more effective prophylaxis and treatment of epidemic disease like today's Hakbyeong(瘧病) can be found.

I. 緒論

“瘧”이란 말은 《說文》에서 말하길 “寒熱休作”이라 하였고, 《釋名》에서는 “酷虐也, 凡疾或寒或熱耳, 而此疾先寒後熱, 兩疾似酷虐者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瘧病”이라는 말은瘧疾을 달리 부른 이름으로서 모질게 앓는 병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며¹⁾, 또한瘧疾이란瘧邪에 의하여 생긴傳染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惡寒戰慄과發熱이 엇바뀌면서週期的으로發作하는病症을 말한다. 주로 무덥고濕한 여름과 초가을에 풀과 숲이茂盛하고濕한地帶에서 잘 생긴다.瘧邪의特性和患者의體質, 臨床症狀에 따라 風瘧, 溫瘧, 熱瘧, 瘴瘧, 暑瘧, 濕瘧, 寒瘧, 牡瘧, 瘧母, 瘵瘧 등으로 나누며, 發作 날짜에 따라 間日瘧, 三日瘧, 三陰瘧, 久瘧 등으로 나누고, 誘發要因과 돌립하는特性에 따라 勞瘧, 虛瘧, 食瘧 등으로 나눈다²⁾. 따라서瘧病은寒戰壯熱, 休作有時를特徵으로 하는疾病임을 알 수 있다.

瘧病에 對한名稱은《內經》에서 처음 볼 수 있는데《素問·瘧論》에서는瘧病의病因病機, 症狀 등에 대하여 자세히說明하고 있고, 또한《素問·刺瘧》에서도瘧病에 대한 자세한鍼灸法을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瘧病은 중요한病으로認識된 듯하다.

《金匱要略》의 著者인張機의主要業績은《傷寒雜病論》을著述한 것으로, 이는漢代三百餘年の臨床實踐經驗을總括하고,《內經》의基本理論과連繫를시켜, 이를 더욱充實하게發展시켰

으며, 或은一部不合理한部分을糾正함으로써臨床應用에 더욱 좋도록해서東洋醫學의健全한發展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東洋醫學의辨證論治에 있어서의基礎를設定하였는데, 이辨證論治는病機의病變進行에對한治療와一致하는一種의臨床基本理論이다. 즉病變의表, 裏, 陰, 陽, 寒, 熱, 虛, 實 등各異한情況에根據하여治療原則을決定하는理論이다³⁾.

《金匱要略》은《傷寒雜病論》이戰亂으로 인한災害로亡失된後雜病과婦科部分을拔萃한것으로內經의思想體系를繼承하여陰陽五行臟腑經絡學說을運用하였고 아울러 이것을辨證論治의理論根據로 삼았다⁴⁾. 疾病으로篇次를나뉘며 모두二十五篇으로하였는데瘧病脈證病治篇은그네 번째로서《內經》에서말한瘧病의病因病機, 症候, 分類와鍼灸方을繼承하여瘧病의病機, 症狀, 脈象, 分類, 治法, 轉歸 등을論하였다. 비록本篇은條文이 많지는 않으나 그內容이簡單하면서明瞭하여後世의瘧病에對한辨證施治의基礎를提供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著者는本篇의條文의病因과病理, 그리고處方에對하여歷代醫家들의註釋과現代의여러研究結果를綜合하여研究한結果 몇 가지知見을 얻었기에, 이에報告하는 바이다.

II. 資料 調査

本論文에서는《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第四》

1) 김동일 외,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pp.944, 1989.

2) 김동일 외,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pp.945, 1989.

3)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pp.98-102, 1984.

4) 文濬曲 외, 傷寒論精解, 경희대학교출판부, 1998.

의 5個의 條文에 대한 【原文】은 《金匱要略方論》(成輔社 刊)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金匱要略·癰病脈證并治第四》에 나오는 5個의 條文의 原文에 【校勘】과 【字句解】를 달고, 【解釋】을 하였다.

本 論文에 使用된 符號로는 引用圖書에는 〈 〉, 【校勘】에는 < >, 【字句解】에는 () 안에 各各 該當하는 番號를 매기었으며, 【解釋】은 原文을 直譯하였다. 그리고 《金匱要略·癰病脈證并治第四》에 使用된 3個의 【處方】과 《外臺秘要》에서 引用한 3個의 【處方】에는 處方에 관한 原文을 提示하였으며, 【處方注】와 【處方解】를 달아 各各 整理하였으며, 【處方注】에서는 本 處方에 對한 校勘과 註釋을 整理하였고, 【處方解】에서는 處方에 관한 直解와 病因, 病理 등을 整理하였다.

本論에 나온 《金匱要略·癰病脈證并治第四》의 參考書籍은 다음에 整理한 內容과 같다. 主로 清代 醫書를 參照하여 5個의 條文에 對한 諸家注를 찾아 整理하였다.

著者	書名	著作年代
趙以德	金匱方論衍義	1368
徐忠可	金匱要略論注	1671
程云來	金匱要略直解	1673
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1687
沈明宗	金匱要略編注	1692
魏念庭	金匱要略方論本義	1720
尤在涇	金匱要略心典	1729
吳謙等	醫宗金鑑·訂正金匱要略注	1742
黃坤載	金匱顯解	1756
陳修園	金匱要略淺注	1803
陳修園	金匱方歌括	
唐容川	金匱要略淺注補正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1806
章虛谷	醫門棒喝·傷寒論本旨	1825
丹波元堅	金匱玉函要藥述義	1842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1872
趙穎甫	金匱要略發微	1931
孫鼎宜	孫氏醫學業書六種·傷寒雜病論章句	1932

Ⅲ. 本 論

【原文】

○ 師曰 癰脈自弦 弦數者多熱 弦遲者多寒 弦小緊者下之差 弦遲者可溫之 弦緊者可發汗 鍼灸也 浮大者可吐之 弦數者風發也 以飲食消息止之.

【校勘】

- 〈1〉 灸 : 原作에는 “灸” 据白氏本改⁵⁾.
- 〈2〉 風發 : 《外臺》의 “風疾” 이 이것이다⁶⁾.
- 〈3〉 飲食消息止之 : 《外臺》에는 “止” 자가 없다.
- 〈4〉 弦數者風發也 以飲食消息止之 : 《巢源》에는 이 두 구절이 없다⁷⁾.

【字句解】

- (1) 小緊 : “小緊”은 脈形이 細小함을 말함과 더불어 緊急有力의 脈象을 나타낸다⁸⁾. “小”와 “大”는 相對的인 말로 浮大는 陽이며 病이 表에 있고, 上에 있음을 主하고, 小緊은 陰으로 病이 裏에 있음을 나타낸다⁹⁾.
- (2) 差 : “瘥”와 同字. 病이 나았다는 意味이다¹⁰⁾.

(3) 弦遲, 弦緊 : “遲”와 “緊”은 서로 相對되는 말로서, “遲”는 裏寒, “緊”은 表寒을 意味한다¹¹⁾.

(4) 風發 : 風邪 또는 癰邪에 感受하여 發熱함을 말하고¹²⁾, 風은 邪氣의 裏泛을 말한다¹³⁾¹⁴⁾.

- 5)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7, 1997.
- 6)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3, 1998.
- 7)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3, 1998.
- 8)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7, 1993.
- 9)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3, 1998.
- 10)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7, 1993.
- 11)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3, 1998.
- 12)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7, 1993.
- 13)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

(5) 以飲食消息止之 : 適當한 飲食調理를 말한 다¹⁵⁾. 여기서 또한 消息은 觀察의 意味도 된다¹⁶⁾.

【解釋】

先生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瘧疾의 脈은 당연히 弦하다. 弦하면서도 數한 것은 보통 發熱이 많으며, 脈象이 弦하면서도 遲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통 惡寒이 많다. 弦脈에 가벼운 緊脈이 있는 경우는 攻下法을 使用하면 差度가 있으며, 脈象이 弦하면서도 遲한 경우는 溫法으로 治療한다. 脈象이 弦하면서도 緊한 경우는 發汗이나 鍼灸로 治療하면 된다. 脈象이 浮大한 경우는 吐法을 使用하고, 弦하면서 數한 경우는 風發로써 飲食으로 調理하면 治療가 可能하다.

【病因·病理】

瘧疾은 寒熱發作有時를 主症으로 하고 弦脈을 本脈으로 하는 疾患이다. 原文의 “瘧脈自弦”은 臨床上, 診斷上 크게 도움이 된다. 發熱하면서 脈象이 浮緩 或은 浮緊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太陽證이다. 한편 發熱하고, 脈象은 弦을 나타내고 있으나, 浮緩 或은 浮緊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瘧疾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金匱要略心典》에서는 瘧은 少陽의 邪이고, 弦은 少陽의 脈이므로 서로 一致한다. 그러므로 瘧이 머무르는 곳은 半表半裏之間에 固定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⁷⁾. 이는 瘧病의 主症狀이 寒熱往來하고 口渴作嘔하는 것이므로, 이 主證은 傷寒의 少陽證과 類似함에 起因한 듯하다. 또한 弦은 風脈이며, 風氣는 肝으로 通하므로 肝脈에도 屬하여 瘧은 風에서 生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瘧脈自弦”이란 文句는 瘧病을 規定하는 重要한 價値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단지 病人의 體質과 病因, 或은 다른 邪氣를 兼하였는지가 같지 않으므로 瘧脈이 단지 弦脈만을 나타내지는 않

고, 往往 다른 脈象을 兼한다. 본 조문에서는 脈象을 우선하여 이를 따라서 病機를 나타냈으며, 脈을 辨證의 根據로 삼았다.

熱勢는 躁急함으로 弦脈에 數脈을 兼하게되어 이것은 熱에 多屬하게 되며, 寒性은 凝澁하므로 弦脈에 遲脈을 兼하게되고 이것은 寒에 多屬하는 등으로 說明하여, 이로써 나머지의 경우 (弦小緊者, 弦遲者, 弦緊者, 浮大者, 弦數者)의 病因과 病機도 類推를 可能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金鑑》에서는 “弦數者多熱 弦遲者多寒”을 發作時에 多熱은 陽이 盛한 것이며 多寒은 陰이 盛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弦數者多熱 弦遲者多寒”은 瘧疾의 病機와 辨證의 方法을 總括하여 論한 것이 된다.

“弦小緊者” 以下부터는 瘧病의 治法에 관하여 進一步한 論述을 한 것이다. 傷寒 少陽病에서는 汗吐下의 三法을 禁하였는데, 瘧도 少陽에 屬하는데 어찌 여기서는 瘧의 治法으로 이 三法들을 모두 使用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瘧病은 비록 瘧邪에 感受함에 起因하여 病이 되는 傳染性 疾患으로 그 病情의 變化가 表에 치우친 것과 裏로 치우친 것, 上에 있는 것과 下에 있는 것, 寒에 屬하는 것과 熱에 屬하는 것 등이 있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脈이 弦하면서 小緊한 것에 대하여, 脈大는 陽이고, 脈小는 陰인데, 緊이 비록 寒脈이나 小緊은 內로 入하여 陰이 된 것이다. 陰은 表散이 不可하므로 下之愈가 된다. 이는 “脈小緊者”가 病이 裏에 치우침이 많고, 食滯를 兼하는 것이 많아 下法을 使用함이 可하나, 이것은 承氣湯의 功下를 말함은 아닌 것이다.

또한 脈이 浮하면서 大한 것은, 本來 瘧脈은 弦하고 浮大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病이 在上, 在高에 치우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高한 것은 吐法을 使用함이 可能하게 된다.

遲와 緊의 兩脈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모두 寒에 屬한 것이지만 그 表裏가 같지 않은 것이다. 그 脈이 弦하면서 緊한 것은 病이 表에 치우치며

社, pp.105, 1995.

14) 湖北中醫學院 主編 : 金匱要略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1, 1964.

15) 文棟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3, 1993.

16)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5, 1995.

17) 雷風 晴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27, 1992.

14) 湖北中醫學院 主編 : 金匱要略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1, 1964.

風寒에 感受함을 兼하는 境遇가 많고 寒傷營하여 無汗하므로, 따라서 發汗法을 使用하거나 或은 鍼灸治療를 結合하게 된다. 脈이 弦하면서 遲한 境遇는 裏寒에 屬하므로 濫法을 使用하게 된다.

또한 脈이 弦하면서 數을 兼한 것은 數은 陽脈이고 風은 陽邪이므로 風이 衛氣를 傷한 것이 되고, 病이 陽邪에 屬하여 “風發”이라 하였다. 이는 裏熱이 熾盛한 모양이며 熱極生風의 意味가 되며, 이로 인해 風이 生하면 肝木이 土를 侮하여 그 熱이 胃로 傳하여 津液을 耗損하므로 適當한 飲食消息으로 調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原文】

○ 癰疽 以月一日發 當以十五日愈 設不差 當月盡解 如其不差 當云何? 師曰 此結爲癰疽 名曰癰母 急治之 宜繁甲煎丸.

【校勘】

〈1〉 云何 : 《金匱要略方論本義》에서는 “何如”로 되어 있으며, 元刊本과 醫統本《金匱》에서부터 “云何”라고 되어 있다¹⁹⁾.

【字句解】

〈1〉 十五日 : 옛날 달력에서는 五日을 一候, 三候를 一節로 하고 있었다. 十五日은 卽 一節이다²⁰⁾.

〈2〉 當月盡解 : 古人들은 人體의 氣機의 變化와 節氣는 原則으로서 呼應하므로 하나의 節氣가 지나도록 病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달의 두 번째의 節氣의 마지막, 즉 天氣와 人氣가 활발하게 되는 때에는 病情이 好轉된다고 생각했다²¹⁾.

〈3〉 癰疽 : 痞塊와 마찬가지로 腹中の 덩어리로서 形이 단단하게 變하지 않는 것을 癰, 形이 비교적 軟하고 集結하거나 分散하는 것을 疽라 한다²²⁾.

〈4〉 癰母 : 病名. 오랜 癰疽로 말미암아 痰과 瘀血이 脇下에 結하여 形成된 證이다²³⁾. 이는 癰이 오래되어 形成된 脾臟의 腫大이다²⁴⁾.

【解釋】

癰疽에 걸려 月의 一日에 發病한 경우에는 通常 十五日이 지나면 治癒될 것이다. 十五日이 지나도 病情의 好轉을 볼 수 없으면 月末에는 治癒될 것이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先生이 말하길 “이것은 腹中에 痞塊가 생겨있기 때문이며, 이 病名을 癰母라고 한다. 재빨리 治療해야 하며 繁甲煎丸을 使用해야 한다”고 하셨다.

【病因·病理】

本條文의 大義는 癰疽가 發作함에 있어서 鍼灸治療法을 使用하여 治療하는데, 一定한 治療期間이 經過하면 正氣가 回復하고 邪氣가 衰하여져 治癒됨을 말한다.

《內經·刺癰篇》에서 說明하기를 “十二癰者, 其發各不同時, 察其病形, 以知其何脈之病也. 先其發時如食頃而刺之, 一刺則衰, 二刺則知, 三刺則已. 不已, 刺舌下兩脈出血. 不已, 刺郄中盛經出血, 又刺項以下俠脊者必已.”라고 하여²⁵⁾ 보통의 癰疽은 一般的 治療로 治癒할 수 있으나, 反復的인 治療에도 臨床症狀이 消失하지 않으면 이는 正氣가 未復하고 邪氣가 未衰하여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즉 日久하여도 不愈하면 病邪가 血絡에 깊이 入하여 脇下에 就會하여 癰母를 結成한 것이다.

天氣는 五日에 一候가 되고 三候에 一氣가 되므로 十五日이 一更이며, 天氣와 人氣는 相應하므로 人氣 역시 十五日이 一更이 된다. 氣가 一更하면 氣가 旺해지고 그런즉 正氣는 回復되고 邪氣는 衰하여져 病은 當然히 解한다. 그렇지 않으면 三十日에는 天氣와 人氣가 再更이므로 正氣가 回復되고 邪氣가 스스로 留하지 못하므로 癰疽가 스스로 愈한다. 그러나 再更에 不愈한 것은, 그 邪氣가 반드시 血과 痰과 結하여 癰疽를 脇下에 만들었기 때문이므로 急히 治療해야 한다²⁶⁾. 上條文의 精

19)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9, 1997.
20)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8, 1993.
21)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8, 1993.
22)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7, 1995.
23) 文棟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4, 1993.

24)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8, 1993.
25)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5, 1998.
26) 雷風, 曉雪 點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神은 癩疾의 治療에 氣候의 變遷을 結合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癩母는 內에 癩塊를 가지며 外로는 寒熱의 證을 發하므로 癩塊가 不消하면 寒熱의 外症은 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繁甲煎丸은 行氣逐瘀하는 藥이 많아 癩痕를 부수는데 效果的이므로 이런 경우의 急治에 使用한다.

【處方】

◇ 繁甲煎丸方

繁甲(十二分, 炙) 烏扇(三分, 燒)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三分, 熬)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 熬) 石葦(三分, 去毛) 厚朴(三分) 牡丹(五分, 去心) 瞿麥(二分) 紫葢(三分) 半夏(一分) 人蔘(一分) 蠹蟲(五分, 熬) 阿膠(三分, 炙) 蜂窠(四分, 炙) 赤硝(十二分) 蜣螂(六分, 熬) 桃仁(二分)

右二十三味, 爲末, 取煨籠下灰一斗, 清酒一斛五斗, 浸灰, 後酒盡一半, 着繁甲於中, 煮令泛爛如膠漆, 絞取汁, 內諸藥, 煎爲丸, 如梧子大, 空心腹七丸, 日三服.

【處方注】

〈1〉 繁甲(十二分, 炙) : 《金匱要略方論本義》에는 “十一分”으로 되어 있고²⁷⁾, 《金匱要略廣注》에는 “一十分”으로 되어 있다²⁸⁾.

〈2〉 烏扇 : 射干과 같다²⁹⁾.

〈3〉 鼠婦 : 地虱과 같다.

〈4〉 大黃(三分) : 《金匱要略廣注》에는 “二分”으로 되어 있다³⁰⁾.

〈5〉 蜂窠(四分, 炙) : 元刊本《金匱》에는 “炙”가 “熬”로 되어 있다³¹⁾.

〈6〉 一分 : 옛날의 一兩은 四分, 一分은 六銖이다.

〈7〉 煨籠下灰 : 製鐵爐 속의 재를 말한다³²⁾.

〈8〉 清酒 : 無灰酒를 말한다³³⁾. 味는 甘辛이며 빛깔은 琥珀色을 띠고 있다.

〈9〉 斛 : 度量衡의 名稱. 옛날에는 十斗가 一斛이다.

〈10〉 膠漆 : 阿膠와 漆은 어느 것이나 끈적 끈적한 것인데³⁴⁾, 여기서는 달인 藥物의 끈기의 정도를 比喩하는 데 쓰고 있다.

【處方解】

이 處方은 주로 寒熱 痰濕의 邪와 氣血이 格鬪해서 腦下에 만든 痞塊를 治療하기 위한 것이다. 主로 繁甲으로 단단한 덩어리를 攻하여 응어리를 풀고 癩母를 消除하며, 또한 蠹蟲, 桃仁, 牡丹皮, 大黃, 蜣螂, 赤硝, 鼠婦, 紫葢, 蜂窠 등으로 瘀血을 除去하고, 積塊를 軟하게 하며, 厚朴으로 氣를 調節하고, 澱滯를 깨뜨리고, 半夏, 葶藶, 烏扇, 石葦, 瞿麥으로 痰을 除去하여 氣를 疏通시키는 同時에 人蔘, 阿膠, 芍藥을 도와 氣血을 調和한다. 또 乾薑, 黃芩으로 寒熱을 멈추게 하고, 桂枝, 柴胡로 和解시키고, 製鐵爐의 재를 利用하여 飲食物의 不消化로 인한 澱滯를 消除하고 清酒로 疏通을 재촉하고, 湯液 대신에 丸藥으로 해서 서서히 癩痕를 除去한다.

繁甲煎丸方 : 繁甲(十二分, 炙한다) 烏扇(三分, 熬한다) 黃芩(三分) 柴胡(六分) 鼠婦(三分, 熬한다) 乾薑(三分) 大黃(三分) 芍藥(五分) 桂枝(三分) 葶藶(一分, 熬한다) 石葦(三分, 털을 除去한다) 厚朴(三分) 牡丹(五分, 心を 除去한다) 瞿麥(二分) 紫葢(三分) 半夏(一分) 人蔘(一分) 蠹蟲(五分, 熬한다) 阿膠(三分, 炙한다) 蜂窠(四分, 炙한다) 赤硝(十二分) 蜣螂(六分, 熬한다) 桃仁

pp.29, 1992.
27)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9, 1997.
28)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7, 1992.
29) 呂志杰 : 金匱雜病論治全書, 中醫古籍出版社, pp.66, 1995.
30)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7, 1992.
31)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9, 1997.

32) 沈繼澤 主編 : 金匱要略,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36, 1998.
33) 沈繼澤 主編 : 金匱要略,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36, 1998.
34) 沈繼澤 主編 : 金匱要略,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36, 1998.

(三分)

右二十三味 가운데 鱉甲을 除外한 二十二味를 粉末로 한다. 製鐵爐의 灰 一斗를 淸酒一斛五斗에 담가 술이 折半으로 되면 鱉甲을 넣고 끓여 阿膠나 漆을 녹인 것처럼 되면 짜서 汁을 取하고, 나머지 여러 藥을 넣어서 달여 丸藥으로 한다. 梧子 大정도의 크기로 등글게 해서 空服時에 七丸을 하루 세 번 服用한다.

【原文】

○ 師曰 陰氣孤絕 陽氣獨發 則熱而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 名曰癰疽 若但熱不寒者 邪氣內藏於心 外舍分肉之間 今人消燂肌肉.

【校勘】

〈1〉 師曰 : 《金匱要略廣注》에는 “師曰”의 二字가 없다³⁵⁾.

〈2〉 消 : 《金匱要略廣注》에는 “銷”로 되어 있다³⁶⁾.

〈3〉 肌 : 元刊本《金匱》와, 《金匱要略方論》에서는 “脫”로 되어 있다³⁷⁾.

【字句解】

(1) 陰氣, 陽氣 : 여기서는 陰氣는 津液을, 陽氣는 邪熱을 가리킨다³⁸⁾.

(2) 少氣煩冤 : 少氣는 邪熱이 氣를 傷하게 한 結果이며, 煩冤은 心中이 焦燥하고³⁹⁾, 마음이 우울한 모습의 形容이다⁴⁰⁾.

(3) 癰疽 : 病名. 主要한 症狀은 發熱하나 寒氣는 없는 것이다⁴¹⁾. 癰은 熱이며, 疽를 溫瘡의 一種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⁴²⁾.

(4) 內藏於心 : 心은 胃脘을 가리킨다⁴³⁾.

(5) 外舍 : 外舍는 邪氣가 外에 머무름을 이른다⁴⁴⁾.

(6) 分肉 : 卽 肌肉으로 皮膚의 內部에서 뼈에 가까운 肌肉을 말한다⁴⁵⁾.

(7) 消燂 : 損傷한다는 意味이다⁴⁶⁾⁴⁷⁾.

(8) 消燂肌肉 : 熱邪가 肌肉을 損傷시켜 消燂해 진다는 意味이다⁴⁸⁾.

【解釋】

先生이 말하기를 陰氣가 極度로 不足하여 陽氣가 홀로 盛한 患者는 發熱이 甚하고 呼吸이 弱하고, 心中에 煩悶하며, 手足은 熱을 띠고, 吐氣가 있는데 이러한 疾病을 癰疽이라고 한다. 만약 단지 發熱만 하고 寒을 거리지 않는 것은 邪氣가 體內로는 心에 藏되고, 外로는 分肉之間에 머물러 肌肉을 損傷한 것이다.

【病因·病理】

本 條文은 두 段階로 나누어 解釋이 可能하다. “陰氣孤絕”부터 “名曰癰疽”까지가 한 段階로 癰疽의 病機와 症狀을 論述하였으며, “若但熱不寒者”以下는 두 번째 段階로 여기서는 進一步한 闡述로 但熱不寒 등 症狀의 病機와 病理를 論하였다⁴⁹⁾.

처음에 있는 “陰氣孤絕, 陽氣獨發”은 癰疽의 病機를 概括한 것이다. 여기서의 “陰氣”는 津液을 指稱하는 것이며, “陽氣”는 熱邪를 指稱하는 것이다. 陰氣가 不足한 사람의 病이 癰疽에 이르러서는 發作時 大熱하고 不寒하며 心煩口渴하고, 陰氣가 壯

35)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8, 1992.

36)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8, 1992.

37)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61, 1997.

38)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9, 1993.

39)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9, 1993.

40)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9, 1995.

41)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7, 1998.

42)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9, 1995.

43)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9, 1993.

44)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9, 1993.

45) 文棣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5, 1993.

46)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9, 1995.

47)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9, 1993.

48) 文棣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5, 1993.

49)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7, 1998.

차 衰渴하려 하는데 이를 이르러 “陰氣孤絕，陽氣獨發”이라 하였다.

瘧瘧에서 나타나는 少氣煩冤，手足熱，欲嘔 등의 症狀는 왜 나타나는가? 이는 條文 中에 說明한 “邪氣內藏于心，外舍分肉之間”에 起因한다. 여기서 “心”이란 內臟을 廣範圍하게 指稱하는 말이며, “分肉”이란 역시 體表를 廣範圍하게 指稱하는 말이다. 따라서 瘧瘧은 陽氣가 偏盛하고, 內外가 모두 熱한 症狀에 屬한다. 熱淫이 內에 있으면 心과 肺에 影響을 주어 少氣煩冤하게 되며, 胃熱이 上冲함에 起因하여 時時로 欲嘔하게 된다. 熱이 外로 盛하면 但熱不寒하고 手足俱熱하게 되며, 熱이 盛하여 津液을 耗損시키면 “今人消鑠肌肉”하게 된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瘧瘧者，肺素有熱，氣盛于身，厥逆上冲，中氣實而不外泄，因有所用力，腠理開，風寒舍于皮膚之內，分肉之間而發，發則陽氣盛，陽氣盛而不衰則病矣。其氣不及于陰，故但熱而不寒”이라고 하여, 平素 肺에 熱이 있는 것이 瘧瘧을 이룬다고 하였고, 陰氣孤絕이란 것은 熱邪가 亢盛하여 熱盛한 則 氣少하여 少氣煩冤한다고 하였으며, 表裏俱病으로 手足熱而欲嘔한다고 하였다. 心은 陽臟이고, 心은 惡熱하며 邪氣內藏于心하고 外舍于分肉之間하면 內外가 燔灼하여 今人消鑠肌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熱이 心에 藏하여 지는 것이 瘧瘧이 되는 것이며, 그런즉 瘧瘧이 머무르는 곳은 心과 肺 兩經이 되는 것이다⁵⁰⁾⁵¹⁾.

《心典》에서는 《內經》의 瘧瘧과 거의 類似하다. 여기서의 少氣煩冤의 病理는 陰氣가 虛하면 陽氣가 반드시 發하고, 陽氣가 發하면 足히 傷氣하고 耗神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四肢는 모든 陽의 本이므로 陽盛한 則 手足이 熱하며, 欲嘔는 熱이 胃를 侵犯한 것이며, 邪氣內藏于心이란 瘧은 陽邪고 心도 陽臟이며 陽이 陽을 따르므로 邪外舍分肉하게 되며, 그 氣가 心으로 內通하게 된다 하였다. 消鑠肌肉에 관하여는 肌肉은 陰인데 陽極하여 陰이 消한다 하였다⁵²⁾.

50)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8, 1992.

51)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8, 1998.

本 條文에는 治法이 없으나 後人들은 白虎湯, 白虎加人蔘湯, 또는 竹葉石膏湯 등을 많이 使用하였다.

【原文】

○ 溫瘧者 其脈如平 身無寒但熱 骨節疼煩 時嘔 白虎加桂枝湯主之.

【校勘】

〈1〉 嘔 : 《脈經》, 《千金》에는 “嘔”下에 “朝發暮解, 暮發朝解, 名曰溫瘧”이라는 文句가 있다⁵³⁾.

【字句解】

- (1) 其脈如平 : 脈象이 弦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 骨節疼煩 : 疼煩은 몹시 아픈 모습의 形容이며, 骨節疼煩은 表邪가 아직 消除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 (3) 時嘔 : 자꾸만 吐氣가 일어나 멈추지 않는다는 意味이다.

【解釋】

溫瘧은 그 脈이 平하며 發熱은 있으나 惡寒은 없으며 骨節이 疼煩하며 때때로 吐氣가 있으니 白虎加桂枝湯으로 主治한다.

【病因·病理】

第一條에서 說明한 “瘧脈自弦”, “弦數者多熱”이 있는데, 溫瘧의 脈象은 應當 弦數하며 여기서 말하는 “其脈如平”은 前者에서 說明한 “弦數者多熱”과 一致하며 단지 말의 變化일 뿐이다⁵⁴⁾.

溫瘧은 身熱, 骨節疼煩이 主症이며, 단지 發作時 惡寒의 症狀이 역시 있으나 惡寒의 時間이 極도로 짧으며 形寒이 보이면 즉시 高熱이 나며 發熱의 時間이 긴 것이다. 여기서의 “無寒”은 無大寒 또는 無裏寒으로 理解해야하며, 즉 微有表寒의 意味이다⁵⁵⁾. 따라서 惡寒의 時間이 짧고 發熱時間이 긴

52) 雷風 曉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29, 1992.

53) 湖北中醫學院 主編 : 金匱要略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3, 1964.

54)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8, 1998.

55) 蘇寶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50, 1993.

것을 여기서는 “無寒但熱”이라 說明하였다. 瘧瘧의 “但熱不寒”과의 鑑別이 이것이 된다. 《脈經》, 《千金》에서는 “嘔”자 아래에 모두 “朝發暮解, 暮發朝解”라는 두 文句가 있음으로 가히 알 수 있다⁵⁶⁾.

溫瘧과 瘧瘧은 病程上 熱證에 屬함이 같으나, 두 證이 같지 않음은 瘧瘧은 內外가 모두 熱症인데 反해 溫瘧은 여기에 表證을 兼한 것이다. 瘧瘧의 “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는 溫瘧의 “身熱微寒, 骨節疼煩, 時嘔”가 된다. 熱盛時嘔는 熱이 裏에서 盛함의 象이고, 骨節疼煩과 時嘔는 表證을 兼한 것이 된다. 따라서 治療의 方法도 白虎加桂枝湯으로 清熱하며 解表하는 것이다⁵⁷⁾.

《千金》에서의 白虎加桂枝湯方의 注에서 말하기를 “煎取三升, 分溫三服, 復令汗, 先寒後熱, 汗出者愈”라 하였는데, 本 書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溫服汗出愈”라 하여 溫瘧이 비록 熱이 甚한 症狀이나 無汗이 많으므로 汗出으로써 表를 解하는 것이 治療의 方法이 됨을 말하였고, 이것이 瘧瘧과의 差異가 된다.

《內經》에서 말하길 “溫瘧者, 得之冬中于風寒, 氣藏于骨髓之中, 至春則陽氣大發, 邪氣不能自出, 因遇大暑, 腦髓燻, 肌肉消, 腠理發泄, 或有所用力, 邪氣與汗皆出, 此病藏于腎. 其氣先從內出之外也. 如是者, 陰虛而陽盛, 陽盛則熱矣, 衰則氣復反入, 入則陽虛, 陽虛則寒矣, 故先熱而後寒, 名曰溫瘧”이라 하여 溫瘧의 病理를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 溫瘧을 “先熱後寒”으로 說明하였는데 이는 仲景의 “無寒但熱”이 溫瘧이 됨의 意味이다⁵⁸⁾.

【處方】

◇ 白虎加桂枝湯方

知母(六兩) 石膏(一斤) 甘草(二兩, 炙)
粳米(二合) 桂枝(三兩, 去皮)

右銚, 每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汗出愈.

【處方注】

〈1〉 桂枝(三兩, 去皮) : 《金匱要略廣注》에서는 “去皮”二字가 없다⁵⁹⁾.

〈2〉 每五錢 : 약간 疑心스럽다. 漢代에서 處方에 쓰는 重量單位로는 “兩”과 “銖”뿐이며, “錢”은 없었기 때문이다.

〈3〉 右銚, 每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汗出愈 : 《金匱要略廣注》에서는 “右五味, 以水一斗, 煎米熟湯成, 去渣, 溫服一升, 日三服”이라고 되어 있다⁶⁰⁾.

【處方解】

溫瘧病의 臨床上的 特徵은 우선 發熱하고, 이어서 추위를 꺼린다. 熱은 높으나 추위는 그다지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裏에 熱이 있기 때문이므로 白虎湯으로 主治한다. 또 關節이 몹시 아픈 것은 表에 寒邪가 있기 때문이므로 白虎湯에 桂枝를 加해서 肺의 衛氣를 通行시킨다.

白虎加桂枝湯方 : 知母(六兩) 石膏(一斤) 甘草(二兩, 炙한다) 粳米(二合) 桂枝(三兩, 芎질을 除去한다)

위의 藥物을 잘게 썰어 五錢씩 取해서 酒盃一盃의 물로 八分정도까지 달여, 찌꺼기를 除去하고 따뜻하게 해서 服用한다. 땀이 나면 治癒된다.

【原文】

○ 瘧多寒者 名曰牡瘧 蜀漆散主之.

【校勘】

〈1〉 牡 : 《金匱要略廣注》에는 “牝”으로 되어 있다⁶¹⁾.

【字句解】

(1) 多寒 : 瘧邪로 말미암아 陰氣가 매우 盛하게 되기 때문에 寒氣가 甚한 것이다. 多寒은 陽氣가 痰飲에 간혀서 肌表의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는 寒氣와 비슷하나 正말로 寒氣가 드

56)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8, 1998.

57) 雷風, 曉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29, 1992.

58)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9, 1992.

59)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9, 1992.

60)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40, 1992.

61)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40, 1992.

는 것은 아니라는 說도 있다.

(2) 牡瘡 : 病名으로 二種類의 解釋이 있다. 이는 즉 心은 牡臟이며, 痰이 心에 內伏하기 때문에 瘡이 되므로, 牡瘡이라는 것이 한가지이며, 다른 하나는 《醫方考》에서 말하기를 “牝, 陰也, 無陽之名, 故多寒名牝瘡.” 이라 하였으며⁶²⁾, 牡는 獸類의 陽性에 屬하고, 牝은 獸類의 陰性에 屬하는데, 瘡疾에서는 매우 寒氣가 甚하여 陰에 기울어지고 있으므로 牝瘡이어야 한다는 解釋이며, 《外臺》에서도 傷寒論의 原文을 引用하여 牝瘡이라 하고 있다⁶³⁾⁶⁴⁾.

【解釋】

瘡疾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추위를 몹시 꺼리는 것을 牡瘡이라고 하며 蜀漆散으로 主治한다.

【病因·病理】

上條文의 溫瘡은 그 證이 熱多寒少임에 反해, 여기서의 牡瘡은 그 證이 寒多熱少로서 臨床症狀 또한 두 證이 서로 相反된다.

本證의 發病機制는 其人이 平素 痰飲을 가지고 있음에 起因하며, 陽氣가 陰邪에 의해 沮遏되어 瘡邪에 感受한 後에 그 邪氣 역시 陰分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陽分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게되어 나타나므로 症狀 역시 寒多熱少가 된다.

《醫通》에서 말하기를 邪氣內藏于心하면 但熱而不寒하게 되고 이것이 癰瘡이며, 邪氣伏藏于腎하면 多寒而少熱하게 되고 이것이 牡瘡이 된다고 하였다. 邪氣가 伏結하면 陽氣가 外로 不行하게 되어 外寒하며, 積聚와 津液이 痰을 成하면 이것도 多寒하게 된다⁶⁵⁾.

《心典》에서는 瘡多寒은 眞寒이 아니며 이는 陽氣가 痰飲에 의해 沮遏되어 肌表로 外出이 안되고 단지 心間에 內伏한 것이며, 心은 牡藏이므로

牡瘡이라 하였다⁶⁶⁾.

【處方】

◇ 蜀漆散方

蜀漆(洗, 去腥) 雲母(燒二日夜) 龍骨(等分)

上三味, 杵爲散, 未發前以漿水服半錢, 溫瘡加蜀漆半分, 臨發時服一錢匕.

【處方注】

〈1〉 未發前 : 瘡疾이 일어나 發熱하고 추위를 꺼리게되기 以前을 말한다.

〈2〉 前 : 《金匱要略廣注》에는 “時”로 되어 있다⁶⁷⁾.

〈3〉 漿水 : 《外臺》에서는 淸漿水라 하였다. “漿”은 飲料의 總稱으로 여기서는 즉, 水煎服의 意味이다⁶⁸⁾.

〈4〉 半錢 : 原本에는 없으나 元刊本 《金匱》에는 “半錢匕”로 “匕”字가 補充되어 있다⁶⁹⁾.

〈5〉 臨發時 : 溫瘡의 發作이 始作되려고 하는 때를 말한다.

【處方解】

蜀漆散은 祛痰止瘡의 方劑이다. 여기서 蜀漆이 君藥으로 蜀漆은 生으로 使用해서 瘡邪를 遮斷하여 頑固한 痰을 吐하게 한다. 雲母는 病邪를 上乘시켜서 體表에서 外部로 驅逐한다. 龍骨은 潛降하여서 患部에 直接 到達하고, 또 痰을 誘導하여 外部로 보낼 수가 있어 瘡邪의 出口을 만든다. 漿水는 藥物의 服用을 調定하여 臟腑를 調和시킬 수가 있다.

蜀漆散方 : 蜀漆 (씻어서 汚내를 除去한다) 雲母 (二日二夜 굽는다) 龍骨 (모두 等量씩 使用한다)

上三味를 절구로 攪어서 粉末로 하여 瘡疾이 일어나기 전에 漿水로 半錢匕 服用한다. 溫瘡의 경

62)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11, 1995.
 6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0, 1998.
 64) 湖北中醫學院 主編 : 金匱要略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4, 1964.
 65)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1, 1998.

66) 雷風 曉雪 點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30, 1992.
 67)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40, 1992.
 68)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0, 1998.
 69)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64, 1997.

우에는 蜀漆 折半을 加하여 發作이 일어나기 直前에 一錢匕 服用한다.

【附】 《外臺秘要》方

◇ 牡蠣湯 : 治牡瘧.

牡蠣(四兩, 熬) 麻黃(四兩, 去節) 甘草(二兩) 蜀漆(三兩)

上四味, 以水八升, 先煎蜀漆, 麻黃, 去上沫, 得六升, 內諸藥, 煮取二升. 若吐, 則勿更服.

【處方解】

이 處方은 蜀漆散의 處方의 생각을 模倣하여, 若干 藥味를 바꾸고, 또한 散藥을 湯藥으로 한 것이다. 蜀漆散은 體內에 痰이 있고 表熱이 가벼운 瘧疾에 比較的 效果가 있으나 이 處方은 體內에 痰이 있고, 表熱이 무거운 瘧疾에 效果的이다⁷⁰⁾.

《傷寒論》의 小柴胡湯加減法에서 말하기를 “若 脇下硬滿者, 去大棗, 加牡蠣四兩.” 이라 하였는데 本 方의 症狀에도 脇下硬滿이 있으므로 여기서 由來함을 理解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蜀漆과 牡蠣를 配伍하여 瘧邪의 治療를 強化하였으며, 麻黃과 甘草를 配伍하여 疏表發汗의 效能을 增加시켰다. 따라서 本 方은 發熱無汗하고 脇下硬滿하는 瘧疾에 應用된다.

牡蠣湯方 : 牡瘧을 治療한다⁷¹⁾.

牡蠣(四兩, 熬한다.) 麻黃(四兩, 節을 除去한다.) 甘草(二兩) 蜀漆(三兩)

上 四味 가운데 우선 蜀漆과 麻黃을 물 八升으로 달여서 뜸 거품을 除去하여 六升으로 만들고, 여기에 나머지 藥物을 넣어서 二升으로 달여, 따뜻하게 하여 一升을 服用한다. 뜨하면 服用해서는 안 된다.

◇ 柴胡去半夏加括蕒湯 : 治瘧病發渴者, 亦治勞瘧.

柴胡(八兩) 人蔘(三兩) 黃芪(三兩) 甘草(三兩) 括蕒根(四兩) 生薑(二兩) 大棗(十二枚)

上七味, 以水一斗二升, 煮取六升, 去滓再煎, 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處方解】

本 處方은 《傷寒論》의 小柴胡湯加減方으로, 柴胡는 太陽의 表를 離脫했으나 아직 陽明의 裏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少陽의 邪를 除去하고, 黃芩은 마찬가지로 少陽의 熱을 맑게 한다. 生薑과 大棗는 表裏를 調和하고, 人蔘과 甘草는 正氣를 도와 病邪를 除去한다. 입이 마르기 때문에 辛燥한 性味의 半夏를 除去하고, 括蕒根의 寒性을 加해서 津液을 만들어내서 渴을 멈추게 하여 虛勞久瘧을 治療한다⁷²⁾.

柴胡去半夏加括蕒湯方 : 瘧疾을 앓고 있어서 입이 마르는 症狀을 治療하며, 勞瘧도 治療한다.

柴胡(八兩) 人蔘(三兩) 黃芪(三兩) 甘草(三兩) 括蕒根(四兩) 生薑(二兩) 大棗(十二枚)

위의 七味를 물 一斗二升으로 달여 六升으로 만들고, 去滓하여 다시 三升으로 달인다. 따뜻하게 하여 一升을 服用하며 一日에 三回 服用한다.

◇ 柴胡桂薑湯 : 治瘧寒多微有熱, 或但寒不熱.

柴胡(半斤) 桂枝(三兩, 去皮) 乾薑(二兩) 黃芩(三兩) 括蕒根(四兩) 牡蠣(三兩, 熬) 甘草(二兩, 炙)

上七味, 以水一斗二升, 煮取六升, 去滓再煎, 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初服微煩, 復服汗出便愈.

【處方解】

柴胡와 黃芩은 少陽證을 和解하고, 桂枝와 乾薑은 寒邪를 따뜻하게 하여 除去하고, 牡蠣는 鬱結을 散하게 하고, 括蕒根은 渴을 멈추게 하고, 甘草는 諸藥을 調和한다.

本 處方 역시 《傷寒論》에서 보이는데 本 方의

70) 雷風, 曉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30, 1992.

71)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1, 1998.

72)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2, 1998.

證은 前의 蜀漆散證과 病機가 相同하며 後世 醫家들은 本方과 蜀漆散을 合用하여 龍骨과 雲母를 去하고 陳皮, 半夏, 茯苓, 川朴, 草果 등을 加하여 寒多熱少, 苔白腕悶, 口膩多涎 등의 症狀을 보이는 瘧疾을 治療하였다⁷³⁾.

弦脈은 瘧疾의 主脈이고, 寒熱往來는 瘧疾의 主症이며, 따라서 小柴胡湯은 瘧疾의 主要한 處方이다. 寒邪가 많고 熱邪가 적은 傾向이 있는 境遇에는 柴胡桂枝湯을 使用하고, 反對로 熱邪가 많고 寒邪가 적은 傾向이 있는 境遇에는 白虎加桂枝湯을 使用한다. 熱邪가 있을 뿐이며 寒氣가 들지 않는 瘧疾에는 白虎湯을 使用하고, 寒邪뿐이며 熱邪가 거의 없는 牡蠣에는 蜀漆湯을 使用하면 좋다. 牡蠣湯은 體內에 痰이 있고, 게다가 表邪가 있는 症狀을 治療하고, 鱉甲煎丸은 腹部에 瘧母가 있는 症狀을 治療한다.

柴胡桂薑湯方 : 瘧疾로 몹시 寒氣가 드나 熱은 가벼운 경우, 或은 寒을 거릴 뿐이며 發熱하지 않는 症狀을 治療한다.

柴胡(半斤) 桂枝(三兩, 絹裹을 除去한다.) 乾薑(二兩) 黃芩(三兩) 括蕪根(四兩) 牡蠣(三兩, 熬한다.) 甘草(二兩, 炙한다.)

上の 七味를 물 一斗二升으로 달여 六升으로 하고, 去滓하여 다시 三升으로 달인다. 一升을 따듯이 하여 服用하며, 一日에 三回 服用한다. 最初 服用하면 微煩하나, 다시 服用하면 汗出하면서 治愈된다.

IV. 考察

本篇은 瘧病의 病證과 脈證과 治療를 論述하였는데, 以上 內容을 綜合的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瘧病의 正義와 脈證

“瘧”이란 말은 《說文》에서 말하길 “寒熱休作”이라 하였고, 《釋名》에서는 “酷虐也, 凡疾

或寒或熱耳, 而此疾先寒後熱, 兩疾似酷虐者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瘧病”이라는 말은 瘧疾을 달리 부른 이름으로서 모질게 앓는 病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며⁷⁴⁾, 또한 瘧疾이란 瘧邪에 의하여 생긴 傳染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 惡寒戰慄과 發熱이 엇바뀌면서 週期的으로 發作하는 病症을 말한다. 瘧邪의 特性和 患者의 體質, 臨床症狀에 따라 風瘧, 溫瘧, 熱瘧, 瘧瘧, 暑瘧, 濕瘧, 寒瘧, 牡瘧, 瘧母, 瘧癘으로 나누며 發作 날짜에 따라 間日瘧, 三日瘧, 三陰瘧, 久瘧으로 나누고 誘發要因과 들림 하는 特性에 따라 勞瘧, 虛瘧, 食瘧 등으로 나눈다⁷⁵⁾. 따라서 瘧病은 寒戰壯熱, 休作有時를 特徵으로 하는 疾病임을 알 수 있다.

名稱은 《內經》에서 처음 볼 수 있는데 《素門·瘧論》에서 “瘧瘧皆生于風”이라 하여 最初의 言及이 있다. 또한 《金匱要略心典》에서는 瘧은 少陽의 邪이고, 弦은 少陽의 脈이므로 서로 一致한다. 그러므로 瘧이 머무르는 곳은 半表半裏之間에 固定되어 있다고 하였다⁷⁶⁾. 그러므로 瘧疾은 寒熱發作有時를 主症으로 하고 弦脈을 本脈으로 하는 疾患임을 알 수 있다.

脈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熱勢는 躁急함으로 弦脈에 數脈을 兼하게되어 이것은 熱에 多屬하게 되며, 寒性은 凝澁하므로 弦脈에 遲脈을 兼하게되고 이것은 寒에 多屬하게 되며 脈이 弦하면서 小緊한 것은 緊이 비록 寒脈이나 小緊은 內로 入하여 陰이 된 것이며 病이 裏에 치우침이 많고, 食滯를 兼하는 것이 많은 것이며, 또한 脈이 浮하면서 大한 것은 本來 瘧脈은 弦하고 浮大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病이 在上, 在高에 치우친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遲와 緊의 兩脈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모두 寒에 屬한 것이지만 그 表裏가 같지 않은 것이다. 그 脈이 弦하면서 緊한 것은 病이 表에 치우치며 風寒에 感受함을 兼하는 境遇가 많고 脈이 弦하면서 遲한

74) 김동일 외,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pp.944, 1989.

75) 김동일 외, 동의학사전, 여강출판사, pp.944, 1989.

76) 雷風 曉雲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27, 1992.

7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2, 1998.

境遇는 裏寒에 屬한다. 또한 脈이 弦하면서 數을 兼한 것은 數은 陽脈이고 風은 陽邪이므로 風이 衛氣를 傷한 것이 되고, 이는 裏熱이 熾盛한 모양이며 熱極生風의 意味가 되며, 이로 인해 風이 生하면 肝木이 土를 侮하여 그 熱이 胃로 傳하여 津液을 耗損하므로 適當한 飲食消息으로 調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癰疽는 少陽을 떠나지 않고 少陽은 半表와 半裏의 사이에 居하는 것이므로 邪가 入하여 陰으로 더불어 다투면 곧 寒하여지고 出하여 陽으로 더불어 다투면 熱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爭하면 곧 病을 作하고 息하면 곧 病이 止하는 것이며, 止한 後에는 그 邪가 의연히 少陽의 經에 居한다 하였으니 外는 陽이 되고 內는 陰이 되는 것이므로 먼저 寒하는 것은 邪가 出하려고 그 氣가 太陽을 干涉하여 寒水의 氣를 衝動하므로 作하는 것이요 後에 熱하는 것은 胃는 燥土가 되고 脾는 濕土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濕이 燥함을 從하여 化하면 곧 木도 또한 그 火를 從하여 化하는 것이므로 그리하여 熱이 되고 汗이 되는 것이며, 汗한 後에는 木邪가 의연히 陽明의 中에 伏하는 것이니 그 氣에 應하여 發하는 것은 土가 信을 主하기 때문이며, 이리하여 대개 久癰은 胃가 虛한 것이고 그 補를 得하면 가히 愈하는 것이므로 먼저 君으로 白朮을 用하는 生薑湯이 效가 많다고 하겠다.

대체로 이 癰이라는 것은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모기에서 感染된 말라리아의 原蟲에 의하여 發生되는 것이며, 또한 症狀이 이미 說한 바와 같이 바로 反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潛伏하였다가 나타나며 反復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역시 外因에 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內經에서 말한 바와 같은 風寒과 類似한 同類인 즉 外感의 一種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단 古人이 말한 癰은 現今에 말하는 局限인 癰疾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類型的 寒熱病도 아울러 指稱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現今의 癰疾이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것은 確定事實인 것이지만 局限된 意味 以外에도 여러 面의 寒熱病에 活用하는 治法

의 理致가 含蓄되어 있는 것임과 아울러 또한 癰을 新藥으로 쉽게 治하였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남은 現代醫學에서 理解하기 模糊한 後遺症에 대하여도 自然의 生理機轉에 의한 이 治法을 通하여 簡平하고 完全한 面으로 調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깊이 精讀할 것이라 하겠다⁷⁷⁾.

2. 癰疽의 分類

本 篇에서 보이는 癰疽의 類型은 癰母, 癰疽, 溫癰, 牡癰의 4種이며, 이에 관하여 各各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癰母

癰母는 오랜 癰疾로 말미암아 痰과 瘀血이 脇下에 結하여 形成된 證이며⁷⁸⁾ 이는 癰이 오래되어 形成된 脾臟의 腫大이다⁷⁹⁾. 보통의 癰疽는 一般의 治療로 治癒할 수 있으나, 反復的인 治療에도 臨床症狀이 消失하지 않으면 이는 正氣가 未復하고 邪氣가 未衰하여 말미암은 것이며, 이런 경우 즉 日久하여도 不愈하면 病邪가 血絡에 깊이 入하여 血과 痰과 結하여 癰塊를 脇下에 만들어 癰母를 結成한 것이다. 또한 癰母는 內에 癰塊를 가지며 外로는 寒熱의 證을 發하므로 癰塊가 不消하면 寒熱의 外症은 愈하지 못하게 된다.

2) 癰疽

癰疽의 症狀은 少氣煩冤, 手足熱, 欲嘔 등이며, 陽氣가 偏盛하고, 內外가 모두 熱한 症狀에 屬한다. 熱淫이 內에 있으면 心과 肺에 影響을 주어 少氣煩冤하게 되며, 胃熱이 上冲함에 起因하여 時時로 欲嘔하게 된다. 熱이 外로 盛하면 但熱不寒하고 手足俱熱하게 되며, 熱이 盛하여 津液을 耗損시키면 “今人消鑠肌肉”하게 된다. 또한 平素 肺에 熱이 있는 것이 癰疽를 이루며, 癰疽이 머무르는 곳은 心과 肺 兩經이 되는 것이다⁸⁰⁾⁸¹⁾.

77) 李正來 : 東醫要論眞詮, 泰昌出版社, pp.1267-1268, 1992.

78) 文棟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4, 1993.

79) 蘇宝剛 主編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pp.48, 1993.

80)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pp.38, 1992.

81)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

3) 溫瘧

溫瘧은 身熱, 骨節疼煩이 主症이며, 단지 發作時 惡寒의 症狀이 역시 있으나 惡寒의 時間이 極도로 짧으며 形寒이 보이면 즉시 高熱이 나며 發熱의 時間이 긴 것이다. 溫瘧과 癰瘡은 病程上 熱證에 屬함이 같으나, 두 證이 같지 않은은 癰瘡은 內外가 모두 熱症인데 反해 溫瘧은 여기에 表證을 兼한 것이다. 癰瘡의 “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는 溫瘧의 “身熱微寒, 骨節疼煩, 時嘔”가 된다. 熱盛時嘔는 熱이 裏에서 盛함의 象이고, 骨節疼煩과 時嘔는 表證을 兼한 것이 된다. 따라서 治療의 方法도 白虎加桂枝湯으로 清熱하며 解表하는 것이다⁸²⁾.

4) 牡瘧

위의 세 種類의 瘧病은 그 證이 熱多寒少임에 反해, 牡瘧은 그 證이 寒多熱少로서 臨床症狀 또한 上의 瘧病들과 서로 相反된다. 本證의 發病機制는 其人이 平素 痰飲을 가지고 있음에 起因하며, 陽氣가 陰邪에 의해 沮遏되어 瘧邪에 感受한 後에 그 邪氣 역시 陰分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陽分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게되어 나타나는 症狀 역시 寒多熱少가 된다. 《醫通》에서 말하기를 邪氣內藏于心하면 但熱而不寒하게 되고 이것이 癰瘡이며, 邪氣伏藏于腎하면 多寒而少熱하게 되고 이것이 牡瘧이 된다고 하였다. 邪氣가 伏結하면 陽氣가 外로 不行하게 되어 外寒하며, 積聚와 津液이 痰을 成하면 이것도 多寒하게 된다⁸³⁾.

3. 瘧病的 處方

本條文에 나타난 瘧病에 使用하는 處方은 鱉甲煎丸, 白虎加桂枝湯, 蜀漆散의 3種이며 이에 관하여 各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鱉甲煎丸

이 處方은 主로 寒熱 痰濕의 邪와 氣血이 格鬪해서 脇下에 만든 痞塊를 治療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瘧病이 日久하여 脇下에 痞塊를 形成한 牡瘧의 治療에 使用된다. 主로 鱉甲으로 단단한 덩어리를 攻하여 응어리를 풀고 瘧母를 消除하며, 또한 蠟蟲, 桃仁, 牡丹皮, 大黃, 蜣螂, 赤硝, 鼠婦, 紫葳, 蜂窠 등으로 瘀血을 除去하고, 積塊를 軟하게 하며, 厚朴으로 氣를 調節하고, 澁滯를 깨뜨리고, 半夏, 葶藶, 烏扇, 石膏, 瞿麥으로 痰을 除去하여 물을 疏通시키는 同時에 人蔘, 阿膠, 芍藥을 도와 氣血을 調和한다. 또 乾薑, 黃芩으로 寒熱을 멈추게 하고, 桂枝, 柴胡로 和解시키고, 製鐵爐의 재를 利用하여 飲食物의 不消化로 인한 澁滯를 消除하고 淸酒로 疏通을 재촉하고, 湯液 대신에 丸藥으로 해서 서서히 癥瘕를 除去한다.

2) 白虎加桂枝湯

이 處方은 溫瘧의 治療에 使用되는데, 溫瘧病의 臨床上的 特徵은 우선 發熱하고, 이어서 추위를 꺼린다. 이는 熱은 높으나 추위는 그다지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裏에 熱이 있기 때문이므로 白虎湯으로 營分의 熱邪를 淸하여 主治한다. 또한 桂枝를 加한 것은 石膏와 知母를 引하여 거느리고 上行하여 肺에 이르러 衛分을 從하여 熱을 泄하게 함인 것이므로 邪가 表에 鬱한 것이 卽刻 和함에 이르도록 하여 瘧도 그치게 하는 것이다⁸⁴⁾.

3) 蜀漆散

蜀漆散은 祛痰止瘧의 方劑이며 牡瘧을 治療하기 위하여 使用

되었다. 여기서 蜀漆이 君藥으로 蜀漆은 生으로 使用해서 瘧邪를 遮斷하여 頑固한 痰을 吐하게 한다. 雲母는 病邪를 上乘시켜서 體表에서 外部로 驅逐한다. 龍骨은 潛降하여서 患部에 直接 到達하고, 또 痰을 誘導하여 外部로 보낼 수가 있어 瘧邪의 出口을 만든다. 漿水는 藥物의 服用을 調定하여 臟腑를 調和시킬 수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瘧病의 種類와 治法에 關하여 標로 整理하였다.

料, 人民衛生出版社, pp.138, 1998.

82) 雷風 曉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29, 1992.

83)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pp.141, 1998.

84) 李正來 : 東醫要諦眞詮, 泰昌出版社, pp.1264, 1992.

		溫 瘧	瘧 瘧	牡 瘧	瘧 母
異	證候	身熱微惡寒,骨節疼煩,時嘔,脈弦或不弦	但熱無寒,少氣煩冤,手足熱而欲嘔,肌肉消瘦,脈多數	寒多熱少	脇下脹痛,按之有塊,觸之不移,寒熱易作
	病機	裏熱熾盛,兼有表寒	裏熱熾盛,充斥內外,傷津耗液	痰飲內停,阻遏陽氣	病久正虛,痰瘀互結
	治法	清熱生津,解表散寒	清熱生津	祛痰通陽止瘧	化痰軟堅扶正消癥
	處方	白虎加桂枝湯	白虎加人參湯,竹葉石膏湯	蜀漆湯	鱉甲煎丸
同	病程	不 長			較 長
	休作	定 時			或有定時
	轉歸	可愈或轉爲瘧母			病勢緩解或終身不愈,或生它變

V. 結 論

以上の《金匱要略·瘧病脈證并治第四》에 나타난 瘧病의 病證과 病理에 對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瘧病은 寒熱發作有時를 主症으로 하고 弦脈을 本脈으로 하는 疾患이며, 半表半裏之間에 固定되어 있다.
2. 瘧의 脈象의 變化는 本脈은 弦이나, 病人의 體質과 病因, 或은 다른 邪氣를 兼하였는지에 따라 數, 遲, 小緊, 浮大, 緊 등의 脈을 兼하게 된다.
3. 瘧病의 豫後는 十五日이 지나면 天氣와 人氣가 旺해져 正氣는 回復되고 邪氣는 衰하여져서 病이 스스로 解하나, 그렇지 않으면 三十日에는 病이 스스로 愈하는데, 三十日에도 不愈한 것은 脇下에 癥瘕가 있는 것이므로 急治해야 한다.
4. 瘧病의 類型은, 瘧邪가 오래되어 생기는 것으로 內에 癥塊를 가지며 外로는 寒熱의 證을 發하는 瘧母와, 平素 肺에 熱이 있는 것이 原因이 되어 少氣煩冤, 手足熱, 欲嘔 등의 症狀

을 나타내며 후에는 人消鑠肌肉하게 되는 瘧瘧이 있고, 脈象은 弦數하며, 身熱, 骨節疼煩이 主症인 溫瘧이 있으며, 證이 寒多熱少로서 發病機制는 其人이 平素 痰飲을 가지고 있음에 起因하는 牡瘧이 있다.

5. 本 篇에서 나타난 處方은 瘧母를 急治하는데 使用하는 鱉甲煎丸이 있으며, 溫瘧을 治療하는 白虎加桂枝湯이 있고, 牡瘧을 治療하는 蜀漆散이 있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向後 金匱要略 條文의 各病證에 나타난 病因 病理와 處方에 對한 더 깊은 研究가 이루어진다면 現在의 瘧疾과 같은 傳染性 疾患의 效果的인 豫防 및 治療方法을 摸索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李克光, 張家禮 :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p.105~116.
2. 陳修園 : 金匱要略淺註, 太平書局出版, 1975.
3. 李克光 :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1989.
4. 朴憲在 : 正統金匱要略, 醫學研究社, 1987, pp.104~113.
5. 魏念庭 :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pp.57~67.
6. 王建平, 史定文 외 : 金匱要略自學輔導, 中醫古籍出版社, 1988.
7. 文棣 校注 :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1993, pp.23~26.
8. 杜雨茂, 張聯惠 : 金匱要略闡釋, 醫聖堂, 1994.
9. 蔣先德 : 金匱要略, 春秋出版社, 1988.
10. 中醫師研習良書 : 金匱要略精義, 文光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2年 4月, pp.62~70.
11. 湖北中醫學院 主編 : 金匱要略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p.41~45.
12. 廖厚澤 : 傷寒金匱匯證詮解, 中醫古籍出版社, 1996.
13. 趙以德, 周揚俊 : 金匱玉函經二註, 1990.
14. 陳修園 : 金匱方歌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1963, pp.16~21.
15. 李克光 외 :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16. 楊宏仁 : 金匱要略重編, 世一書局, 中華民國 72年 12月, pp.50~55.
17. 何任 외 : 金匱要略語譯, 人民衛生出版社, 1990.
18. 楊向輝 : 金匱要略注釋, 國立編譯館, 正中書局印行, 中華民國 75年 1月, pp.55~60.
19. 呂志杰 : 金匱雜病論治全書, 中醫古籍出版社, 1995, pp.65~75.
20. 宋書功 : 金匱要略廣注校註, 人民衛生出版社, 1994.
21. 李文瑞 주편 : 金匱要略湯證論治, 中醫科學技術出版社, 1993.
22. 蔡仁植 :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刊, 1974, pp.42~50.
23. 朴憲在 : 完譯金匱要略, 書苑堂, 1978, pp.116~125.
24. 譚日強 : 金匱要略淺述, 人民衛生出版社, 1989.
25. 杜曉玲 :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35~40.
26. 南京中醫藥大學 金匱教研室 : 金匱要略學習參考資料,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33~144.
27. 成都中醫學院 : 金匱要略選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28. 沈繼澤 주편 : 金匱要略,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p.34~38.
29. 雷風 曉雪 点校 :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27~31.
30. 李東建 : 國譯金匱要略, 書苑堂, 1996.
31. 于志賢, 張智基 点校 : 金匱要略, 中義古籍出版社, 1997, pp.10~12.
32. 何任 : 金匱要略新解,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1, pp.33~36.
33. 中國中醫研究院 編 : 正統金匱要略, 醫學研究社, 1983.
34. 張建榮 : 金匱證治精要,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64~70.
35. 蘇宝剛 주편 : 金匱要略講義, 學苑出版社, 1993, pp.47~52.
36. 李正來 : 東醫要諦真詮, 泰昌出版社, 1992, pp.1259~1268.